



속절없이 하락하는 환율. 은행은 환율 하락의 수혜주

은행 Weekly | 2026.9.7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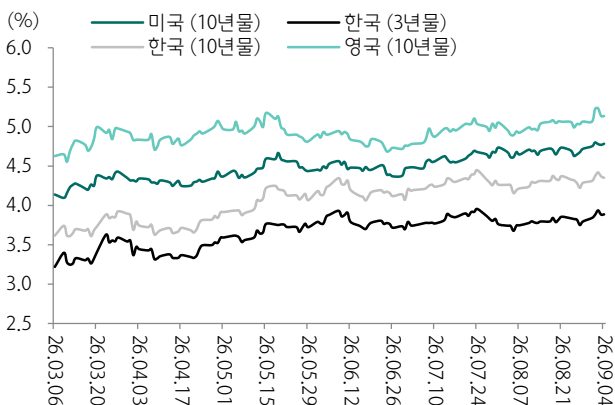
- 은행권이 집단대출 공급을 늘리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재개하면서 8월 중 주요 5대은행 집단대출이 1조원 이상 증가. 월간 증가 폭으로는 2024년 9월 이후 최대치.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난데 발맞춰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완화된 영향
- 금융위, 주택공급을 위한 PF 자금지원을 생산적금융과 배치되지 않는 생산성 높은 활동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자금공급 주문. 기업금융 확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온 은행권에 혼선 발생. 심사리스크의 보수적 태도로 속도 높이는데는 한계
- 금감원이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와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 중인 가운데 선취·후취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 검토 중. 6개 은행이 올해 5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는 5,864억원으로 파장 예상
- 운용자산이 3.6조달러인 미국 캐피탈그룹이 JB금융에 이어 신한지주 지분 확보 등 잇달아 금융지주 지분을 매입.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신한지주 지분을 매입.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IR에 나서면서 외국계 자금 유입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9월 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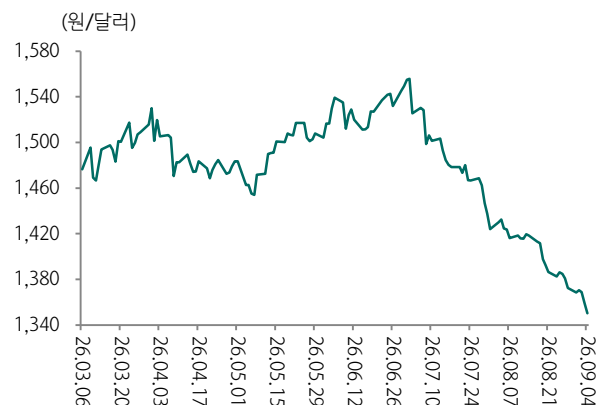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3	6.4	23.8		5,517,718.9	-1.5	5.2	-18.1	58.7	-1,370.6	-133.1	-2,281.1	-2,776.3
은행	0.72	8.2	9.0	0.64	214,449.0	-0.1	4.1	3.2	31.2	489.1	109.5	73.2	-75.5
KB 금융	0.94	9.2	10.4	0.79	61,006.3	0.2	1.9	0.2	37.9	116.7	32.7	-98.1	-18.3
신한지주	0.83	10.0	9.5	0.68	51,780.4	0.5	7.8	2.6	43.4	147.8	-5.3	-106.0	-20.0
우리금융	0.59	7.5	8.3	0.52	24,461.3	-2.1	0.0	6.4	18.6	68.3	43.8	398.2	-1.8
하나금융	0.73	8.3	9.3	0.64	36,847.6	-1.3	5.3	8.7	42.7	96.4	3.3	-86.6	-10.7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506.7	-0.7	1.7	0.2	-1.2	12.5	2.4	-6.0	-6.4
BNK 금융	0.42	5.8	7.4	0.50	4,722.3	1.8	1.9	-10.7	-3.0	15.3	16.7	-12.5	-2.8
이M 금융	0.43	5.9	7.5	0.47	2,869.5	0.0	5.0	2.4	16.5	6.7	2.9	-0.4	-6.0
JB 금융	0.88	7.6	12.1	1.00	5,782.2	6.7	14.6	20.4	20.9	25.5	13.0	-15.5	-9.4
카카오뱅크	1.47	18.1	8.3	0.73	10,472.8	0.5	0.5	-4.8	1.6	6.2	2.6	1.6	-7.7
삼성카드	0.59	8.5	7.0	1.90	5,346.9	-2.4	-0.9	0.3	-17.4	-0.1	-1.0	-4.7	4.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1% 하락했지만 KOSPI 하락률 1.5%에 비해서는 초과상승. 그 이유는 반도체업종 조정 양상이 지속되면서 KOSPI 상승 폭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defensive 성격의 매력이 커진 점도 한 몫.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최근 연일 은행주를 순매수 중.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초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 발언이 잇따르며 금리동결 기대감으로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자 금리인상 확률이 다시 반등했기 때문. 전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37%로 한주간 1bp 상승에 그쳤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4.78%로 5bp 추가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금통위로 인해 전전주 반락한 이후 지난주에는 다시 상승. 3년물 국채금리는 3.89%로 10bp나 상승했고, 10년물은 4.36%로 한주간 8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와의 동조화 영향과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되면서 추가 하락. 1,350.1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9.4원 추가 하락했는데 6월말 대비로는 약 200원 정도 하락한 상황. 외국인은 지난주에 KOSPI를 약 2.3조원 순매도한 반면 은행주를 730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는 우리금융 블록딜 지분 4,646억원을 외국인이 모두 소화했기 때문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당폭의 순매도 흐름으로 봐야 함. 국내 기관은 KOSPI를 약 1.4조원 순매도했지만 은행주는 4,9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은행 자사주 매입분 1,900억원 정도를 제외해도 국내 기관은 2주 연속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냄
- 지난주에도 특징주는 JB금융. 주가가 한주간 6.7% 상승해 2주 연속 은행주 내에서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컸음. 외국인은 순매도인 반면 연기금을 비롯해 국내 기관이 대량 매수하고 있는 점이 수급상 특징적인 요인. 반면 우리금융은 주가가 2.1% 하락해 업종내에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 유진PE의 블록딜 매도(할인율 3.7%) 때문으로 추정. 그 외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주가도 하락해 업종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음
-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금융 과점주주였던 유진PE가 보유주식 14백만주(발행주식수대비 1.9%)를 3일 장 시작전 블록딜로 매각한 것으로 보도. 9월 2일 종가인 34,500원에 3.8% 할인된 33,189원에 매각. 총 매각규모는 4,646억원으로 매각주관사는 UBS였으며 전량 외국인들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짐. 유진PE는 기존에 약 29.5백만주(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번 매각으로 잔여주식수는 약 15.5백만주(2.1%)로 추정. 매도자 60일 lockup이 걸려 있으므로 유진PE는 최소 11월초까지는 잔여지분을 매각하지 못함. 유진PE는 2021년 12월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시 지분을 투자해 5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lockup 해제시 잔여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따라서 오버행 우려가 소멸되기는 어려울 듯. 2016년과 2021년 예보지분 처분시 형성되었던 남은 과점주주는 키움증권(3.7%)과 한투증권(3.7%). 푸본생명은 2019년 4% 지분을 따로 인수한 새로운 과점주주임. 이들 과점주주들은 구조상 단기간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판단됨
-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3분기 은행 손익과 CET 1 비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 현 환율이 분기말까지 지속될 경우 기업은행은 3분기에 이론적으로 2,500억원 정도의 외화환산익 발생이 가능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2,000억원과 1,300억원 내외의 외화환산익 발생 가능. 2025년말과 2026년 1분기말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및 확대 인정 등으로 이전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CET 1 비율 상승 민감도가 다소 적어지기는 했지만 환율 하락시 여전히 10원당 약 1~2bp 정도의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형은행지주사들의 경우 3분기 중 약 20~40bp 내외의 CET 1 비율 상승 영향 예상. 최근 국채금리 상승 폭에 비해 3분기 NIM 개선이 다소 어렵다는 점은 다소간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대출성장률이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어 순이자이익은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3분기 실적 또한 우려와 달리 감익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センチ멘트 개선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국채금리와 반도체 주가 흐름에 따라 은행주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이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낮은 multiple과 3분기 이익 호조 가능성 등을 감안시 실적 시즌을 겨냥한 매수 전략이 바람직. 9월은 8월의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는 주가 흐름 기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20,000원), 하나금융(매수/TP 166,000원)

- 최근 외국인들의 KB금융에 대한 순매도세 약화 중. 우려와 달리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홍콩 ELS 과정금 환입시 2분기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순익 실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업종내 주도주로 재부각될 여지가 높은 편
- 하나금융은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과 CET 1 비율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은행.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3분기 CET 1 비율이 QoQ 60bp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전망. 따라서 예상보다 주주환원율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 더 높아짐

Global Peer Table

(2026년 9월 4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3	6.4	23.8		5,517,718.9	-1.5	5.2	-18.1	58.7
은행	0.72	8.2	9.0	0.64	214,449.0	-0.1	4.1	3.2	31.2
KB금융	0.94	9.2	10.4	0.79	61,006.3	0.2	1.9	0.2	37.9
신한지주	0.83	10.0	9.5	0.68	51,780.4	0.5	7.8	2.6	43.4
우리금융	0.59	7.5	8.3	0.52	24,461.3	-2.1	0.0	6.4	18.6
하나금융	0.73	8.3	9.3	0.64	36,847.6	-1.3	5.3	8.7	42.7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506.7	-0.7	1.7	0.2	-1.2
BNK금융	0.42	5.8	7.4	0.50	4,722.3	1.8	1.9	-10.7	-3.0
IM금융	0.43	5.9	7.5	0.47	2,869.5	0.0	5.0	2.4	16.5
JB금융	0.88	7.6	12.1	1.00	5,782.2	6.7	14.6	20.4	20.9
카카오뱅크	1.47	18.1	8.3	0.73	10,472.8	0.5	0.5	-4.8	1.6
삼성카드	0.59	8.5	7.0	1.90	5,346.9	-2.4	-0.9	0.3	-17.4

미국

S&P 500	5.20	21.5	22.9	6.03	68,837.5	0.1	-0.1	2.1	12.8
은행	1.76	13.3	13.3	1.15	2,352.7	1.4	-0.1	12.6	10.8
Wells Fargo	1.59	13.0	13.3	1.03	272.1	3.8	2.4	10.9	-3.5
JPM	2.60	14.6	18.8	1.38	953.3	0.3	0.3	15.9	11.3
CITI	1.17	12.4	10.0	0.71	231.0	3.6	0.6	2.4	18.0
BOA	1.55	13.5	12.2	0.99	438.3	1.1	0.2	16.9	14.0
US Bancorp	1.57	12.1	13.4	1.18	98.7	1.4	-1.3	15.2	18.8
PNC	1.63	12.7	13.2	1.27	98.0	1.4	-3.4	9.0	17.7
BB&T	1.05	11.2	9.6	1.05	63.1	2.4	-1.0	6.1	5.0

중국

상해A주지수	1.38	14.0	10.1	1.43	63,150.1	-0.5	2.9	-2.0	-1.0
은행	0.72	7.8	9.4	0.69	13,041.1	3.7	7.4	12.2	-0.6
공상은행	0.70	7.9	9.1	0.68	2,763.5	3.4	6.1	12.4	2.5
건설은행	0.76	8.3	9.6	0.73	2,240.7	2.7	8.7	11.7	18.3
농업은행	0.83	8.4	9.9	0.62	2,394.0	2.5	5.3	10.5	-9.4
중국은행	0.74	8.8	8.7	0.65	2,001.6	6.1	12.9	13.6	14.7
교통은행	0.54	6.9	7.9	0.62	635.1	4.5	5.4	13.2	2.3
초상은행	0.88	7.0	12.9	1.13	1,069.6	5.9	6.1	12.4	-1.0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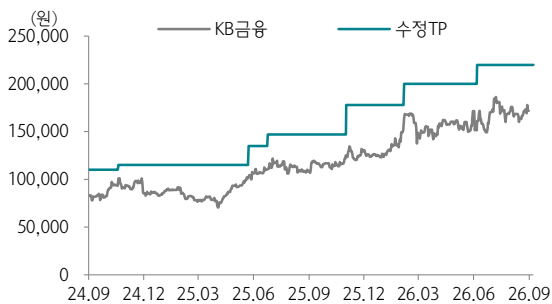
NIKKEI	2.78	21.0	12.8	4.61	1,049,485.6	-2.1	1.7	-3.5	29.2
은행	1.55	14.8	9.8	0.51	152,176.6	2.4	9.6	18.2	51.4
Mitsubishi UHF	2.01	19.1	10.8	0.61	44,919.3	3.5	9.1	19.4	51.8
Sumitomo Mitsui Financial	1.73	17.1	10.8	0.61	26,923.4	2.6	8.7	15.6	40.5
Mizuho	1.95	18.0	11.4	0.43	21,433.4	3.4	7.9	14.8	53.9
Sumitomo Mitsui Trust	1.50	16.7	9.3	0.37	5,034.2	0.6	10.4	25.8	50.8

유럽

MSCI Europe	2.41	15.9	14.5	1.76	15,547.7	-0.8	-0.8	4.6	9.9
은행	1.61	11.9	13.8	0.75	2,266.2	1.8	0.3	17.3	23.2
HSBC	1.97	12.8	15.3	0.85	271.3	3.4	0.2	16.2	34.6
Santander	1.73	12.3	13.9	0.79	193.3	1.2	1.8	19.9	27.8
BNP Paribas	0.94	8.9	10.9	0.45	115.2	1.9	-6.6	11.2	29.4
Credit Agricole	0.76	8.1	9.8	0.29	57.5	2.0	-2.9	13.9	7.2
Deutsche	1.00	10.6	9.6	0.44	67.9	2.2	9.1	27.9	7.3
Unicredit	1.75	11.3	16.5	1.24	126.2	-1.2	-2.1	12.8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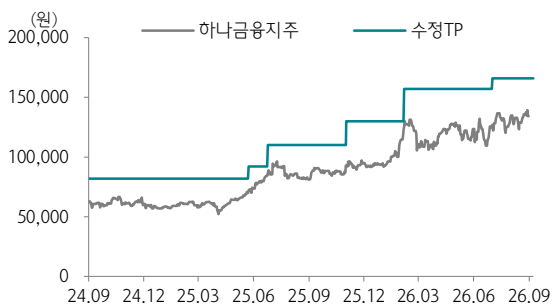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2	BUY	220,000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하나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7	BUY	166,000		
26.2.11	BUY	157,000	-24.52%	-15.92%
25.11.7	BUY	130,000	-25.41%	-6.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9%	1.81%	0.00%	100%

* 기준일: 2026년 9월 4일